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자의조직적 강령

디엘로트루다

디엘로트루다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자의조직적강령
1926

차례

서론	3
역사적도입	6
2001 년의추가사항	9
서문	10
총칙	14
1. 계급투쟁, 그역할과의미	14
2. 폭력적사회혁명의필요성	15
3. 아나키스트와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	15
4. 민주주의에대한반대. 민주주의는부르주아자본주의사회의한형태 일뿐	17
5. 국가와권위에대한부정	18
6. 사회적투쟁과사회혁명에서대중과아나키스트의역할	19
7. 이행기	22
8. 아나키즘과조합주의	23
건설의원칙	26
생산	27
소비	27
토지	29
혁명의방어	30
조직의원칙	32
1. 이론적단결	32
2. 전술적단결, 혹은집단행동	32
3. 공동책임	33
4. 연방주의	33

아나키스트총동맹은사회혁명을희망하고, 나아가계급사회의철폐를열망하는반권위주의조직으로써, 사회골간의두계급, 노동자와농민을동등하게옹호한다. 총동맹은두계급을해방하는과업에동등한역량을투여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조합과도시의혁명적조직들의선구자이자이론적이정표가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착취당한농민대중에대해서도동일하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자들에게혁명적노동조합이하는역할을수행할혁명적농민조직을, 나아가반권위주의적원칙위에세워진농민조합을실현하고자노력해야한다. 나아가,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인민대중에서태어났기에, 그들의삶이현현하는모든과정에참여해야한다. 그들에게조직의영혼, 인내와공세의영혼을불어넣어야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이그목적을, 사회혁명을향한이론적이고역사적인과업을다하고, 이해방의과정에서조직적선봉이되기위한방법은이방법밖에없다.

네스토르마흐노, 아이다멧, 표트르아르치노프, 발레프스키, 린스키
1926

이잘못된해석이우리운동을해체하여왔다. 이제공고하고뒤집을수없는방법으로그것을끝낼시간이다.

연방은개인과조직이공동의목적을향하여집단적으로활동하기위한자유로운합의를중요하게여긴다.

하지만합의와그에근거한연방적조직은그합의에참가한모든구성원들과조직이합의한의무를거의모두다하고, 공동체적결정을따른다는조건에서만현실이될수있다. 사회적프로젝트에서, 연방적기반이얼마나광범위한건간에, 집행이없는결정은있을수없다. 특히노동자와사회혁명에관한의무를져야하는아나키스트조직에게, 이것은더욱당연한문제다. 결과적으로, 연방주의적아나키스트조직은각구성원의독립성과자유로운의견과, 개별적자유와주도권을인정하면서도각구성원이확고한조직적임무를다할것을, 공동체적결정의집행을요한다.

이조건에서만연방주의의원칙이살아나고, 아나키스트조직이올바르게기능하고, 결정적목적을향해순항할수있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개념은아나키스트운동의모든세력의협동과동의의문제를제기한다.

동맹에가입한모든조직은유기체의세포와같다. 모든세포는그사무국을통해조직의정치적, 기술적작업을집행하고이론적으로지도해야한다.

동맹에가입한조직의행동적협력이라는관점에서, 동맹집행위원회라는특별한기구가만들어져야한다. 집행위원회는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해야한다. 1. 동맹이만든결정의집행을담보하는것, 2. 동맹의이론적입장과총체적전술에따라, 각개조직에이론적, 조직적지침을주는것, 3. 운동의전체적상황을관측하는것, 4. 동맹내모든조직들의조직적연결망을유지하는것, 5. 동맹외조직들과의관계를유지하는것.

집행위원회의권한, 책임과실질적과업은동맹총회를통해결정되어야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구체적이고확고한목표를가진다. 사회혁명의승리라는명분을위해, 총동맹은노동자와농민들중가장혁명적이고매우핵심적인분자들을매혹시키고흡수해야한다.

서론

1926 년, 추방된러시아아나키스트의그룹인디엘로트루다 (노동자의조직) 이프랑스에서이소책자를출판했다. 이것은학술적연구로부터비롯된것이아니라, 그들이 1917 년의러시아혁명의경험한것으로부터비롯되었다. 그들은옛지배계급을몰아내는데역할을하였고, 노동자와농민의자주적경영을펼치는데역할을하였으며, 사회주의와자유인신세계에대한낙관을공유했다. 그리고그들은이것이국가자본주의와볼셰비키일당독재의유혈로대체되는것을목격하였다.

러시아의아나키스트운동은혁명에서상당한역할을하였다. 당시러시아에는약 1 만명의아나키스트활동가가있었다. 그리고이 1 만명에는우크라이나에서네스토르마흐노가선도하던운동이포함되어있지도않다. 10 월의볼셰비키집권을만들어내었던혁명군사위원회에는최소한 4 명의아나키스트가포함되어있었다. 더중요한것은, 2 월혁명이후아나키스트들은공장위원회에참여하였다는데에있다. 공장위원회는현장에근거하고있었고, 노동자대중의총회에의하여선출되어공장을경영하고, 다른현장과협조하는역할을맡았다. 아나키스트들은광부, 항만노동자, 우정노동자, 제빵노동자들사이에서특히영향력이강했고, 혁명전야페트로그라드에서개최된범러시아공장위원회총회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 아나키스트들은이위원회들을혁명이후에자리잡을노동자의자주경영의근간이되리라바라보았다.

하지만 1917 년 10 월의혁명적정신과단결은오래가지않았다. 볼셰비키들은그들의“일당”권력예방해가된다바라본좌파세력들을탄압했다. 아나키스트들과일부좌파들은노동계급은자체적위원회와소비에트를통해힘을행사할수있다고믿었다. 볼셰비키들은그렇지않았다. 그들은노동자들은아직스스로의운명을통제할수없기에볼셰비키들이“이행기”의“이행수단”으로써집권해야한다는전제를내세웠다. 평범한인민들의자신감결여와권위주의적집권은결국노동계급의이득과희망, 꿈에대한배신으로나타났다.

1918 년 4 월, 모스크바의아나키스트센터들이공격받았다. 600 명의아나키스트들이수감되었고, 십수명이살해당했다. 그명분은아나키스트들이“통제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그들이의미한것이무엇이었건간에, 이말의의미하는것은단순하게아나키스트들이볼셰비키지도자들에게복종하는것을거부했다는

것이였다. 실질적인이유는그들이흑위대를결성하여세카 (KGB 의선조들) 의잔혹한도발과폭력에맞서싸우려했다는것이였다.

아나키스트들은어느편에설지를결정해야했다. 한분파는볼셰비키와함께하기로했고, 효율성에대하고려와반동에대항한단결을위해볼셰비키에합류했다. 다른분파는혁명의성과를그들이새로운지배계급이라본이들로부터지키기위해투쟁했다. 우크라이나의마호노주의운동과크론슈타트의봉기는최후의중요한전투들이었다. 1921 년에는반권위주의적혁명은소멸했다. 이패배는국제노동자운동에깊고오래가는후유증을남겼다.

저자들은이러한재앙이다시일어나지않기를바라마지않는다. 이에기여하기위해그들은“강령”이라불리우는문건을작성했다. 이문건은러시아아나키스트운동이현존하는노동자계급운동안에서볼셰비키및여타정치집단에대항하기위한충분히거대하고유효한존재감을만들어내지못한것에서교훈을삼는다. 이문건은아나키스트들이어떻게조직하여야하고, 어떻게효과적이될것인가에대한거친이정표를제공한다.

“강령”은아나키즘에반대하고모순되는형태의그룹을포함한조직을구성하는것이우스꽝스럽다는단순한진리를천명한다. “강령”은우리가명시적정책, 관료의역할, 회비의징수등을담당하기위해공식적으로합의된구조를필요로한다는사실을지적한다. 이러한구조는더크고효과적인민주적조직을가능하게할것이다.

“강령”이최초에출간되었을때, 이문건은에리코말라테스타나알렉산더베르크만같이당대의유명한아나키스트들로부터공격받았다. 그들은“강령”이“볼셰비즘으로부터단한발짝떨”며, “아나키즘을볼셰비키화하려는”시도라비판했다. 이러한반응은과장된것이였지만, 아마도“강령”이아나키스트총동맹을제안했다는데에근거하고있었을것이다. 저자들은이조직과그외부의아나키스트들사이의관계에대해명확하게적시하지않았다. “강령”은독립된아나키스트조직들이공통된전망과전략으로바라보는문제에공동으로대응하는것에어떠한문제도있을것이라바라보지않았다.

“강령”의반대자와이후의지지자들모두가인정하고있는것은이것이“아나키즘을떠나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로향하는계획이아니라는것이다. 두단어는완전히상호동질적이다. 이문건은러시아아나키스트들이이론적혼란을극복하는데실패하였다는사실을지적하고, 이로써전국적협동의부족과, 비조직화와, 정치적불확실성을촉발하였다는점을지적한다. 이를다른말로표현하면무효하였다는것이되겠다. “강령”은아나키스트운동안에서토론을촉발하고자작성되

공통된전술은운동의모든힘을집중시켜확고한목표를향한공통된지침을가질수있게한다.

3. 공동책임

개인의책임으로활동하는것은분명히철폐되어야하고, 아나키즘운동의대열에서배제되어야한다. 혁명적 (사회적, 정치적) 삶의영역은무엇보다도자연스럽게집단적이다. 이영역에서이루어지는사회혁명을위한활동은, 개별투사들의개인적책임에근거해서는안된다.

아나키스트총운동의집행기관으로써아나키스트동맹은무책임한개인주의적전술을공고하게반대하고, 집단책임의원칙으로대오를정비해야한다. 모든구성원의정치적이고혁명적인활동에대해서는동맹전체가책임져야한다. 그리고그렇기에, 모든구성원은동맹의정치적이고혁명적인행동에대해책임져야한다.

4. 연방주의

아나키즘은언제나중앙집중적조직을거부해왔다. 그리고그거부는대중의사회생활의영역과, 정치적행동의영역모두에대한것이였다. 중앙집중적체계는비판적정신과주도권, 개인의독립성의소멸에근거한다. 그리고대중이‘중앙’을맹종하도록만든다. 이체계의자연스럽고불가피한결과는사회생활과조직의생활을예속시키고기계화시키는것이다.

아나키즘은언제나중앙화가아닌연방주의를주장하고옹호해왔다. 연방주의야말로개인과조직이공통된명분에복무하면서도독립성과자주성을회복할수있는길이기때문이다.

각개인의자주성을회복하고높은수준의권리를보장하며, 그들의사회적필요와필수를충족시키는데있어모든개인의능력이건강하게현현할수있도록한다.

하지만아나키스트대오내에서연방주의의원칙은상당히자주왜곡되어왔다. 연방주의의원칙은마치개인이조직에대한어떠한무도지지않은채개인의‘애고’를표현하는것이옳다는원칙으로이해되어왔다.

조직의원칙

상술한총체적, 건설적입장은혁명적아나키즘세력의조직적강령을구성한다.

강령은결정적인전술적, 이론적지향을포함하고있으며, 조직된아나키즘운동의투자들을모아내기위한필요최소의강령이다.

강령은아나키즘운동의모든건강한요소를모아적극적이고영구적인투쟁을표방하는하나의총체적조직체, 아나키스트총동맹을구성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모든아나키스트투사들의세력은이조직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두어야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기본적조직원칙은아래와같아야한다.

1. 이론적단결

이론은개인과조직의행동을목표를향해설정된경로로이끄는힘을대변한다. 자연스럽게총동맹에가입한모든개인과조직들은공통된이론을갖추어야한다. 총동맹의총체적이고, 세부적인활동들은동맹이천명한이론적원칙과완전히합치하여야한다.

2. 전술적단결, 혹은집단행동

같은논리로, 동맹안에서각개인과조직들이채택하는전술적방법론은통일성을가져야한다. 즉, 상호간에엄격히합치해야하고, 동맹의총체적이론과전술에도합치해야한다.

운동에서공통된전술은조직뿐아니라, 그운동자체의존재에있어서도중요한문제다. 공통된전술은, 서로의전술이서로와반하면서촉발될재앙을제거한다.

었다. 문건은권위주의적정치와의타협을향하는것이아니라근본적으로아나키즘적원칙을가진효과적인혁명행동을구성하는조직을만들필요성을지적하고있다.

오늘날, “강령”은결코완벽한계획이라볼수없다. 1926 년에도“강령”은완벽하지않았다. 이문건은그사상의일부분을충분히깊이설명하지않았다. “강령”은중요한문제를전혀다루지않기도했다. 하지만”강령“이작은소책자일뿐, 26 권짜리백과사전이아님을기억하라. 저자들은서문에서이문건이‘성서’같은것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다. ”강령“은분석이나계획을완성한것이아니다. ”강령“은필요불가결한토론을위한발제문일뿐이다. 그리고, 상당히훌륭한기조발제문이다.

오늘날누구도이문건의의의를잊지않게하도록, “강령”의기본적이상은여전히국제아나키즘운동의주류보다앞서있다는것을언급하고자한다. 세계를더낯게변혁하고싶은아나키스트에게이소책자는방향성과도구를보여줄것이다.

앨런맥시몽, 1989

역사적도입

네스토르마흐노와표트르아시노프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에서추방된아나키스트들과함께홀륭한격월간지디엘로트루다를출간했다. 디엘로트루다는아나키즘적코뮌주의이론에근간한질높은비평지였다. 수년전에이들이모스크바의뷰티르키감옥에수감되어있던때, 그들은이평론지에대한생각을탄생시켰다. 그리고이제야그것을실현시켰다. 마흐노는 3 년간발생한모든문제에대한기사를썼다. 1926 년에이그룹에는그직전에러시아에서탈출한아이다멧 (‘크론슈타트코뮌’의저자) 가합류했다. 그해에그들은“조직적강령”을출판했다.

“강령”이출판되자, 그문건은국제아나키스트운동의분노와매도를맞이해야했다. 이것을가장먼저공격한것은러시아아나키스트인볼린 (당시역시프랑스에있었고, 세바스티앙포레와‘합테제’를공동으로창시하여아나키즘적코뮌주의, 아나키즘적조합주의, 개인주의적아나키즘을통합하고자하고있었다.) 이었다. 물리스타이며, 플레신등도“강령”에반발하여“아나키즘을계급의이론으로남기기위해서는아나키즘을단일한관점으로제약할필요가있다”고언명하는답문을작성했다.

이에굴하지않고, 디엘로트루다는 1927 년 2 월 5 일, ‘국제총회’에의초대장을발송했고, 같은달 12 일사전회의를개최했다. 사전회의에는디엘로트루다외에도프랑스청년아나키스트의대변인인오데온, 불가리아인파벨, 폴란드아나키스트그룹의란코, 오로본페르난데스, 카르보, 히바넬등의스페인투사들, 이탈리아인우고페델리, 중국인첸, 프랑스인도플렝-모니에르가개인자격으로참가했다. 첫회의는파리의한카페의작은뒷방에서개최되었다.

임시회의체가준비되었다. 이회의체는마흐노, 첸, 란코로구성되었다. 2 월 22 일에는모든아나키스트그룹들에회람이발송되었다. 국제총회는 1927 년 4 월 20 일, 파리근교라이레로즈의레로즈극장에서열렸다.

첫번째회의에참석한사람들뿐아니라, 이탈리아의비폴치, ‘펜시에로이볼론타’잡지를대표하는루이지파브리과카밀로베르네리와의우고페델리가“강령”을지지했다. 프랑스의두대표자인오데온과세베린페란델역시“강령”을지지했다.

력을조직하는국가주의적방법론 (즉, 징병제에기반한국민군) 도거부한다. 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근본적입장에따라, 노동자의군대를구성하는기반은자발적복무의원칙이되어야한다. 러시아혁명에서군사행동을이끈빨치산, 노동자, 농민으로구성된반란군분대가그예시가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자발적복무”와빨치산활동은그단어그대로만이해되어서는안된다. 즉, 노동자와농민들이총체적작전계획에따른협동도없이각자의책임과위험을안은채로지역의적들에대한각개전투를시행하는것으로이해되면안된다. 이시기빨치산들의활동과전술은일반적혁명전략에따라집행되어야한다.

모든전쟁이그러하듯이, 노동자들이군사행동에있어서의두가지기본원칙, 즉작전계획에있어서의단결과지휘체계의통일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승리할수없다. 혁명의가장결정적순간은부르주아지가조직된세력으로써혁명을공격해올때찾아온다. 이결정적순간에노동자들은군사전략의원칙을받아들여야한다.

그렇기에군사전략에의해만들어진필요와반혁명의전술을모두고려할때, 무장혁명세력은통일된지휘체계와작전계획을가진혁명군에근거를두어야한다. 이군대는다음과같은원칙을근거로할것이다.

1. 계급적성격의군대
 1. 자발적복무 (혁명을방어하는데있어모든강제성은제외되어야한다.)
 1. 자유로운혁명적규율 (자기규율)(자발적복무와혁명적자기규율은완전히호환된다. 그리고이것이혁명군의사기를어떠한국민군보다도높일것이다.)
 1. 경제/사회생활을통제하기위해대중에의해세워져전국적으로존재하는노동자와농민의조직과, 그조직이대변하는노동자, 농민대중에대한완전한복종.

다르게표현하자면, 혁명의방위기구는다른군사적전선뿐아니라, 내적전선 (부르주아지의음모, 반혁명행동의준비) 에서반혁명과의전투를책임진다. 이방위구는전적으로노동자와농민의생산조직의관할아래에있어야한다.

주의: 군대는온전하게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원칙에따라구성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그자체로원칙의핵심으로여겨져서는안된다. 군대의구성은혁명이촉발한결과이자, 노동자들에게강요되는내전의과정에서의전술적수단일뿐이다. 하지만우리는지금부터이전술에관심을가져야한다. 내전이빛을차질은전체사회혁명의결과에재앙을초래할수있기에, 그러한차질을예방하고혁명을수호하기위해서라도, 군대에대해서는세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아닌산업의모든분야를총괄하는코뮌주의적집단으로써농민들과관계를맺는다
면, 그들이농촌의필요성을고려하여농촌에도구와기계를제공한다면, 이것이농
민들을농업코뮌주의로이끌수있을것이다.

혁명의방어

‘혁명첫날’의문제중에는혁명의방어에관한문제도포함된다. 기본적으로혁
명을방어하는가장강력한수단은생산, 소비, 토지의문제를긍정적으로해결하는
것이다. 이문제들이올바르게해결된다면, 노동자들의자유로운사회를다른것으
로대체하거나, 그균형을깨려는반혁명은불가능할것이다. 물론노동자들은그사
회의공고한존재를유지하기위해혁명의적들과의혹독한투쟁을진행해야한다.

사회혁명은특권층과비동계급의존재를위협한다. 그렇기에사회혁명은이
계급들을대변하는절실한저항을마주할것이며, 격렬한내전이촉발될것이다.

러시아에서의경험이보여준바, 이러한내전은수개월의문제가아니라, 수년
의문제가될것이다.

혁명초기에도노동자들이얼마나즐겁건간에, 지배계급들은오랫동안저항할역
량을유지할것이다. 수년간그들은혁명에대한공세를퍼붓고, 그들이빼앗긴권력
과특권을재확보하려할것이다.

노동자들의승리에대하여, 거대한군대와, 군사기술, 전략, 자본이쏟아부어
질것이다.

혁명의쟁취를온존하기위해노동자들은혁명을방어하고, 반동의공세에투쟁
력으로대응하기위한기구만들필요가있다. 혁명의첫날, 무장한노동자와농민
들이이투쟁력을구성하여야한다. 하지만이러한자발적무장력은초기에만유효
할것이다. 내전이최고조로치닫고, 양측에서정식적으로구성된군사기구를만들
고나면, 그유효성은줄어든다.

사회혁명의가장핵심적인순간은권위의억압중이아니다. 오히려패배한체제
의세력도노동자들을 향한총체적공세를시작할때, 혁명을보장하는것이문제로
도출될때가가장핵심적이다. 이공세는, 그리고내전은노동자들이혁명군을조직
할수밖에없게할것이다. 혁명군의요지와핵심적원칙이먼저결정되어야한다. 우
리가국가주의적이고권위주의적인통치를거부하는만큼, 우리는노동자의군사

이곳에서는다음사항들이제안되었다.

1. 계급투쟁이아나키스트사상에서가장중요한측면임을인지한다.

1. 아나키즘적코뮌주의가운동의근간임을인지한다.

1. 조합주의가투쟁의주된방법론이어야함을인지한다.

1. 이데올로기적, 기술적단결과집단적책임에근거한‘아나키스트총동맹’이
필요함을인지한다.

1. 사회혁명을실현하기위한긍정적계획이필요함을인지한다.

오랜토론끝에최초의제안에일부수정이가해졌다. 하지만경찰이회의장에나
타나모든참가자를체포하면서어떠한것도완성되지못했다. 마흐노는추방될위
기에처했고, 프랑스아나키스트들의투쟁이이를겨우막았다. 하지만‘혁명적아
나키즘적코뮌주의자국제연맹’을위한제안은좌절되었고, 총회에참가한이들중
일부는이것을더주장하기를포기했다.

“강령”을향한다른공격은파브리, 베르네리, 아나키스트역사학자인맥스네
틀로, 그리고유명한이탈리아아나키스트말라테스타에의해이루어졌다. 디엘로
트루다는이공격에대해‘아나키즘의혼란주의자에게답함’과, 1929 년아르시노
프가저술한“강령”에대한선언으로대응했다. 아르시노프는“강령”에대한반응
에실망했고, 1933 년소련으로돌아갔다. 그는스탈린의대속청중, ‘러시아에서
아나키즘을복구하려 시도’하였다는죄목으로고발되었고, 1937 년처형되었다.

“강령”은국제적으로확고한지위를얻지못했다. 하지만“강령”은일부운동에
영향을주었다. 프랑스에서는분열과융합의끝에“강령”을따르는“강령주의자”
들이간헐적으로주요아나키스트조직을통제하곤했지만, 그렇지못할때그들은
조직에서밀려나새로운조직을만들어야했다. 이탈리아에서“강령”의지지자들
은작은‘이탈리아아나키즘적코뮌주의연합’을건설했지만, 곧붕괴했다. 불가리
아에서는조직을두고벌어진논쟁끝에불가리아아나키즘적코뮌주의연방이“공
고한강령”위에, “연구하고조직적인아나키스트조직을위해”, “자유주의주의적
코뮌주의의원칙과전술로건설”되었다. 하지만강경한“강령주의자”들은이조직
을인정하기를거부했고, 그들의주관‘프루포당’을통해그들을비난했다. 이조직
역시곧붕괴했다.

폴란드에서도유사한일이벌어졌다. 폴란드아나키스트연방은계급투쟁과사
회혁명을통하여자본주의와국가를몰아내고, 노동자와농민의평의회와이론적

단결에근간한조직으로새로운사회를건설하고자한다. 하지만그들은“강령”이 권위주의적경향성을가지고있다며이를거부했다. 스페인에서는후안고메스카 사스가 < 아나키스트조직 - F.A.I. 의역사 > 에서말한것처럼“스페인의아나키 즘은인터내셔널이최초에스페인에도달한날부터어떻게영향력을확보하고강화 할지를고민했다.”스페인아나키스트들은당시에고립을탈출하는것이나불세비 키와경쟁하는것을걱정하지않았다. 스페인에서는여전히불세비키의영향력이 작았다. “강령”은스페인운동에거의영향을주지못했다. 아나키스트조직인“이 베리아아나키스트연방 (F.A.I.)” 이 1927 년건설되었을때, “강령”은아직번역 되지않았기에논의되지못했지만, 의제에는포함되었다. 당시프랑스의스페인어 사용아나키스트그룹의서기였던후안마누엘몰리나스는이후카사스에게보내는 편지에서”아르시노프와다른러시아아나키스트들의강령은추방자들의운동이 나국내의운동에아주작은영향만을주었다. “강령”은러시아혁명의빛속에서국 제아나키스트운동의성격과역량을키워내고, 새롭게하고자하는시도였다. 오늘 날, 우리의경험이후에, 나는“강령”은온전히인정받지못하고있는것처럼보인 다.“고적었다.

세계대전은아나키스트조직의발전을방해했다. 하지만“강령”을둘러싼논란 은 50 년대초반프랑스에서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자연방이창설될때, 이탈리아에서프롤레타리아행동을위한아나키스트그룹이창설될때다시점화되었다. 두조직은모두“강령”을참고하였다. 그리고이경향은 60 년대후반 ~70 년대초 반까지이어진브리튼혁명적아나키스트조직, 프랑스혁명적아나키스트조직등 의창설까지이어졌다.

“강령”은계급투쟁적아나키스트들이더효과적인방법을, 정치적고립, 빈곤 과혼란을벗어날방법을모색하고, 마주한문제의답을찾는데에있어여전히소중 한역사적참고자료로남아있다.

닉히스, 1989

토지

농업문제의해결에있어, 우리는타인의노동력을착취하지않는자영농과농촌 의임금프롤레타리아트를주된혁명적세력이라간주한다. 이들의과업은경자유 전의원칙과코뮌주의원칙에따라토지의재분배를확립하는것이다.

산업과마찬가지로토지는수세대간노동자들에의해경작되어왔으며, 그공통 된노력의산물이다. 토지역시모든노동대중에게속하며, 어떠한특정인에게도속 하지않는다. 토지를사고팔거나임대하는것은발생해서는안된다. 토지는타인의 노동을착취하는수단으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또한토지는대중과공동체의일반인들이생활의수단을생산하는작업장이기 도하다. 하지만이작업장은, 역사적조건에따라, 모든노동자 (농민) 들이모든일 을혼자, 다른생산자들과무관하게진행하는데익숙한작업장이다. 산업의영역에 서집단적생산은필수적인것이지만, 농민들은스스로의힘으로토지를경작한다.

결과적으로농민들이토지와그경작수단을손에넣고, 그것을팔거나임대할수 없다면, 그것을이용하는형태의문제, 그리고 (공동체, 또는가족에의한) 경작방 법의문제는, 산업의영역에서와는달리즉각적이고완전하며결정적인해결책을 발견할수없을것이다.

토지의경작과이용의방법은외부적압력을통해서가아니라, 혁명적농부들스스로가확립해야한다.

하지만, 우리가사회혁명이후건설할코뮌주의사회가노동자들을예속과착취 에서구원하고, 노동자들에게완전한자유와평등을줄것이라믿는이상, 농민들이 대중의다수를구성하고있으며, 결과적으로그들이구성할농업체계가혁명의운 명에결정적요인이될것인이상, 그리고농업에서의사적경제가사유재산을구축 하고자본을부활시키게될것인이상, 우리는농업의문제를집단적방법으로해결 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그러기위해우리는농민들에게집단적농업경제에대한끊임없는선전을시작 해야한다.

자유지주의적농민조합의창설은이과업의달성을크게도울것이다.

이관점에서농업의진화를촉진하고, 도시에서코뮌주의를실현할수있게끔할 기술적진보는매우중요하다. 만약, 산업노동자들이개별적으로나독자적그룹이

1. 생산물탐색과소비의원칙

1. 분배의원칙

소비재를분배하는데있어, 그해결책은가능한생산량과분배대상의자유로운합의원칙에의존해야한다.

사회혁명은사회질서의총체적재건으로써, 모든인민의 (반혁명적이유를위해생산에참여하는것을거부한비노동자집단은예외로하자) 생활적필요를충족해야할의무가있다. 하지만총체적으로, 혁명의역역에서모든사람의필요를만족시키는것은소비재의전체재고에의해확보될수있을것이다. 물자가부족하다면, 가장필요로하는사람, 즉아이와병약자, 노동자의가족들에게우선분배해야한다는원칙에따라분배되어야할것이다.

더어려운문제는소비의기반을조직하는것이다.

혁명의첫날부터농장들이전체인구의삶을유지할만큼의생산을감당하지못할것임은의심의여지가없다. 동시에농민들은도시와달리풍요로울것이다.

자유지의주의적코뮌주의자들은도시노동자들과농업노동자들간에상호주의적관계가존재한다는것에대하여의심하지않는다. 우리는사회혁명은노동자와농민들의공통의노력으로만실현될수있다고판단한다. 결과적으로소비의문제를해결하는것은이두종류의노동자들간의혁명적으로끈끈한협동으로만가능한것이다.

이러한협동을확립하기위해, 생산의수단을확보한도시노동계급은농촌노동계급의생활적필요를공급해야하고, 농업집단에게매일의생산물을제공하기위해분투해야한다. 농민의필요라는지점에서노동자들에의해체현된연대는농민들이같은행동을하도록하여, 그들의집단적노동의생산물을도시에게제공하도록할것이다.

노동자와농민의협동체는도시와농촌이식량과생산재의필요를만족하는것을확립하게하고, 나아가노동자/농민의경제/사회생활을보장하고발전시키는데에필요한모든것을제공하는가장중요한기구가되어야한다. 이협동체는도시와농촌사이의영구한공동기구로바뀔것이다.

소비재를제공하는문제에대한해결책은프롤레타리아트가영구한생산물의산을만들어새로운생산양식의결정적효과를결과로써가질수있게할것이다.

2001 년의추가사항

베를린장벽붕괴의여파로촉발된아나키즘의급격한성장에따라, “강령”은신아나키즘에서반조직적경향을극복하고자하는그룹과개인들에게다시금중요한문건으로부상하고있다.

2001 년 2 월, “강령”의영향력은그어느때보다광범위하다. “강령”은터키어, 폴란드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로번역되었다. 동유럽에서는새로운그룹들이등장하고, 남아메리카에서는“강령”이라는역사적문건이도달하기도전에이미“강령”이재발명되고있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레바논, 스위스, 영국, 폴란드, 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캐나다, 체코의아나키스트그룹들은그들의조직방법론을“강령”으로부터기인하고있다.

앤드류플러드

서문

자유지주의적사상의힘과대체불가능한긍정적성격에도 불구하고, 사회혁명을마주함에있어나나키스트들이진실되고솔직한태도를취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아나키스트들이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를실현하고자영웅적으로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스트운동이여전히약하다는것은, 아나키스트운동이노동계급의투쟁사에서단지작은사건으로, 일화로취급될뿐중요한요인으로취급되지는않는다는것은중대한사실이다.

자유지주의적사상의긍정적이고대체불가능한존재감과아나키스트운동이식물화되어있는끔찍한상태의대조는여러이유로설명될수있다. 그중가장중요한것은아나키스트운동에는조직적원칙과실천이부재하다는것이다.

모든국가에서아나키스트운동은서로모순된이론으로, 서로모순된실천을하는몇몇지역조직들로대변된다. 이들에게는미래에대한어떠한전망도, 투쟁적사업의지속성도없고, 습관적으로사라지며, 그흔적조차남기지않는다.

전체적으로받아들여졌을때, 혁명적아나키즘의이러한상태는‘총체적만성조직부전’으로만묘사될수있다.

조직부전이라는질병은마치황열병과같아서, 아나키스트운동에내포된이후십수년간그운동을흔들어왔다.

이조직부전이이론의부재로부터, 특히아나키즘에서개인성의원칙에대한잘못된해석으로부터왔다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 이이론은너무자주무책임함과혼동된다. ‘자기’를주당하는것을사랑하는이들은개인적기쁨만의관점에서, 아나키즘운동의혼란한상태에완강하게매달린다. 그리고그들은이것이아나키즘과그선생들의불변의원칙이라말한다.

하지만불변의원칙과선생들은완전히반대의모습을보여준다.

분산과산발성은파괴적이다. 단단히 묶인동맹이생명과발전의원현이다. 이처럼느슨한사회적투쟁은계급에뿐만아니라조직에있어서도동일하게드러난다.

생산

한나라의산업은수세대간노동자들이쏟아온노력의결과에따르며, 산업의서로다른분야들이서로강하게연관되어있다는사실을고려하면, 우리는전체생산을모든노동자가동시에일하고있는하나의작업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이라고려할수있다.

한나라의생산기능은국제적이며, 전체노동계급에속한다. 이테제는새로운생산의성격과형태를결정한다. 노동자들이생산한생산물들은모두에게귀속되어야한다는지점에서, 생산은또한국제적이며일반적이다. 어떤범주에속해있건, 생산물들은노동자전체에게제공되는일반기금으로써, 생산에참여하는모든이들이필요한만큼가져갈수있어야한다.

새로운생산의체계는모든형태의관료제와착취를대체하고, 형제애적협동과노동자의연대의원칙을그자리에대체해넣을것이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중간관리계급의역할을수행하는중산계급(소상인 등)은부르주아지와마찬가지로다른모든노동자들과마찬가지로생산의새로운방식에참여해야할것이다. 그렇지않는다면, 이계급들은스스로노동자의사회바깥으로나가게될것이다.

사장도, 기업가도, 소유주도, 국영공장관리인도있어서는안될것이다. 경영은새로운생산방식을노동자에의해만들어진행정(노동자의소비에트, 공장위원회, 혹은노동자의자주경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기구들은코뮌의수준에서, 최종적으로는총체적이고연방적인생산관리의측면에서상호작용하게될것이다. 이기구들은대중에의해스스로건설되고, 대중의통제와영향력아래에있어야하며, 꾸준히대중에의한자주경영이라는이상을갱신하고실현해야한다.

생산수단이모두에게귀속되어있는통합적생산은관료제를형제애적협동의원칙으로대체하고, 모든노동자의평등한권리를확립하며, 노동자가통제하고노동자가선출한기구에의한생산통제를확립하여야한다. 이것이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를실현하는길을향한첫번째실질적단계가될것이다.

소비

혁명의과정에서소비의문제는두가지형태로나타날것이다.

건설의원칙

노동자투쟁의근본적목표는혁명을통해자유롭고평등한코뮌주의사회를, “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하는”원칙에따라건설하는것이다.

하지만이사회는스스로이루어지지않고, 오직사회적봉기의힘을통해서만이루어진다. 이사회실현은영광된노동자의조직된세력이명확한길위에서선도하는사회혁명적과정을통해서만가능하다.

지금부터시작하여이길을지적하는것이, 사회혁명의첫날부터발생할수밖에없는구체적문제들에대한안을구성하는것이우리의과업이라하겠다.

새로운사회를건설하는것은노동자이부르주아자본주의체제와그대변인들에게승리한이후에가능한것은자명하다. 새로운경제와새로운사회적관계를국가의권력과예속의체계가여전한상황에서, 노동자들과농민들이산업과농업을통제하지못한상황에서건설하는것은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사회혁명의첫번째과업은자본주의체제에내재한국가주의적조직을분쇄하고, 이를통해권력의수단으로대변되는부르주아와특권계급의요소들을수용하고, 노동자들의반란의지를확립해내는것이다. 혁명의이러한공세적이고파괴적인측면은사회혁명의의미와요점을구성하는과업들을달성하는길을열것이다.

그리고다음과같은과업들을해결해야할것이다.

1. 산업생산의문제를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관점에서해결.
1. 농업의문제를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관점에서해결.
1. 소비의문제를해결

아나키즘은아름다운유토피아도, 추상적철학의이데아도아니다. 아나키즘은노동대중의사회운동이다. 그렇기에아나키즘은, 현실과계급투쟁의전략이요구하는바에따라그힘을하나의조직에모아끓임없이소란을일으켜야한다.

크로포트킨은“우리는러시아의아나키스트조직을구성하는것이결코공통된혁명적과업에해롭지않다는것에동의한다. 오히려조직을구성하는것은매우가치있고유용할것이다.”(바쿠닌의 < 파리코뮌 > 서문에서)

바쿠닌도아나키스트의총체적조직이라는개념을반대하지않았다. 오히려그의조직에대한열망과, 그가 1 차인터내셔널에서행했던활동은바쿠닌이이러한조직의열정적투사라바라보는것이합당하게만든다.

전체적으로, 사실상모든적극적아나키스트투사들은분열된활동에대항하여투쟁했다. 그리고그들은목적과수단에서단결로 묶인아나키스트운동을갈망했다.

1917 년러시아혁명의복판에서, 총체적조직은가장깊고가장긴급하게요구되었다. 혁명의복판에서자유지주의운동의분파주의와혼란은가장크게드러났다. 총체적조직의부재는많은적극적아나키스트투사들을불세비키의명예아래로몰아넣었다. 총체적조직의부재가또한많은현대의투사들을소극적으로만들고, 그힘을모두사용하지못하게만들고있다는사실도고려해야만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의참가자다수가모여, 아나키즘을일반적이고전술적인방침으로써전체운동을선도할조직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이제아나키즘이조직부전의늪을떠날때가, 가장중요한전술적, 이론적질문에대한대답을망설이는것을벗어날때가, 명확하게인식된목표를향해단호하게움직일때가, 조직된집단실천을시행할때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조직의필요성을확립하는것으로는부족하다. 그건설의방법론을확립하는것역시필요하다.

우리는아나키즘의서로다른경향의대표자들을다시모아놓는다는‘통합’의방식이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서투르기에이를거부한다. 다층위의이론적이고실천적인요인들을포함하는이러한형태의조직은단지아나키스트운동의질문에대해서로다른답을가진개인들을기계적으로모아놓는것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이모임은현실을마주하는순간필연적으로다시분해될뿐이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의방법론은아나키스트조직의문제를풀어내지못한다. 이방법론은산업프롤레타리아의문제를일점돌파하여그영역에서힘을얻는데에만집중하기때문이다.

아나키스트의총체적조직이없다면, 이영역에서는많은것을, 심지어거의어떤것도얻어낼수없을것이다.

우리가보기에, 총체적조직의문제의해답을끌어낼수있는유일한방법론은적극적아나키스트투사들을정확한위치에기반하여, 이론적/전술적/조직적으로단일한계획에근거하여배치하는것이다.

이러한계획을고민하는것은최근의사회적투쟁에있어아나키스트들에게주어진핵심적과제라할수있다. 그리고이과제가추방당한러시아아나키스트그룹이그노력을기울여헌신하고자하는과제가기도하다.

조직적강령은이계획의윤곽을, 뼈대를그려내고자작성되었다. 강령은자유의지주의세력을투쟁할수있는, 하나의, 적극적인혁명적집단, 아나키스트총동맹으로묶어내는첫걸음이될것이다.

우리는현재의강령에비약이있다는것을분명하게인지하고있다. 강령은모든새로운, 실질적인, 중요한단계들이그러하듯비약을가지고있다. 중요한내용이빠져있거나, 어떤내용은불충분하게다루어지고, 어떤내용은너무세밀하게반복적으로다루어지고있을수도있다. 중요한것은총체적조직의기반을놓는것이다. 그리고현재의강령으로써, 그목적은필요한만큼달성되었다.

조직을확대하고, 깊이를더하며, 전체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결정적강령으로만들어내는과업은전체집단에, 아나키스트총동맹에게주어졌다.

다른한편우리는의구심을가지고있다. 우리는일부자기식개인주의와혼돈의아나키즘의대변인들이거품을물고우리를공격할것임을, 우리가아나키스트의원칙을부수고있다고발할것임을예견할수있다. 하지만, 우리는개인주의적이고혼돈스러운요소들은‘아나키스트의원칙’을정치적무관심, 태만, 무책임으로받아들이고있음을, 그로써우리의운동을치유불가능한분열로, 우리의투쟁에반하는영역으로가져가고있음을알고있다. 이것이우리가이들의공격을평온하게무시할수있는이유다.

우리는다른투사들에게희망을둔다. 아나키스트운동의비극을경험하고, 그로부터고통받았음에도여전히아나키즘에신실하여고통스럽게해결책을찾고있는사람들말이다.

적노동조합을아나키스트의총체적조직의방향성에따라과업을수행할수있는조직된세력으로보아야한다.

우리스스로를아나키스트적노동조합을건설하는것으로제약하지않는다면, 우리는모든노동조합에이론적영향력을행사할방법을찾아야한다. 우리는이것을소규모실험적집단이아닌엄격하게조직된아나키스트집단을통해서만성취할수있다. 소규모실험적집단으로는, 조직적연계도, 이론적합의도없다.

회사, 공장, 작업장에서의아나키스트그룹들이아나키스트노동조합을건설하고, 혁명적노동조합의투쟁을조합주의에내재한자유지주의적이상으로선도하게끔하고, 이그룹들을아나키스트의총체적조직의행동으로다시금조직하는것. 이것이노동조합주의에대한아나키스트들의수단과방법이되어야한다.

아나키즘과조합주의는서로다른차원의이념이다. 코뮌주의, 즉자유로운노동자들의사회는아나키스트투쟁의목표인반면, 조합주의, 즉혁명적노동자들의직장에서의운동은혁명적계급투쟁의형태중하나일뿐이다. 혁명적조합주의는, 다른직업그룹과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생산에기반하여단결시키기위한분명한이론을가지고있지못하다. 혁명적조합주의는복잡한정치적, 사회적문제에대한답을가지고있지못하다. 혁명적조합주의는다양한정치적모임들의이데올로기를팅겨낼뿐이다.

혁명적조합주의에대한우리의태도를정립해보자. 혁명이후혁명적노동조합의역할에대한질문, 즉, 혁명적노동조합이새로운생산의조직가가되어야하는지, 아니면그들이그역할을노동자소비에트나공장위원회에두어야하는지에대한질문에대한답은미루어두자. 우리는아나키스트들이혁명적노동운동으로써혁명적조합주의에참여해야한다고판단한다.

하지만, 오늘날부각되고있는문제는, 아나키스트들이혁명적조합주의에참여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가아니라, 어떻게참여하고, 어떠한역할을맡아야하는지에관한것이다.

우리는아나키스트들이조합주의운동에개인으로써, 선전가로서진입하여온현대까지의시기를, 노동운동을향한기능공의관계의시기라바라본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는혁명적조합주의의좌익에자유지주의적이상을부여하여아나키즘성격의노동조합을만들려한다. 이것은전진인것처럼보이지만, 아직은실증적방법론을넘어서지못했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가노동조합운동의‘아나키화’를그운동바깥에서조직된아나키스트들을여어낼필요가없었기때문이다. 이것이기반이될때에만, 혁명적노동조합주의는‘아나키화’될수있고, 기회주의와개량주의로향하는것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조합주의는일관성있는사회적/정치적이론이없는노동자들의모임에불과하고, 결과적으로스스로의사회적문제를풀어낼수없다. 그렇기에우리는이운동에있어아나키스트들의과업은그운동안에서자유지주의적이론을발전시키고, 그운동을자유지주의적방향으로유도하고, 그운동을사회혁명의적극적무기로변화시키는것이다. 노동조합주의가아나키즘이론을확보하지않는다면, 시기가도래했을때, 노동조합주의는결국국가주의적정당의이데올로기로돌아설것이다.

혁명적노동자운동에서아나키스트들의과업은노동조합바깥의아나키스트조직과그활동을여어냄으로써만이루어질수있다. 다르게말하자면, 우리는혁명

나아가우리는러시아혁명의숨결로태어나, 건설적문제들의태동기에위치해있는청년아나키스트들은반드시아나키즘의긍정적이고조직적인원칙들이실현되는것을요구하리라는것에희망을둔다.

우리는모든세계각국으로흩어진러시아아나키스트조직들모두가, 고립된투사들모두가, 공통의조직강령에근거하여단결할것을촉구한다.

이강령이혁명의척추가되게하자! 이강령이러시아아나키스트운동의투사들의집결지가되게하자! 이강령이아나키스트총동맹의근간을구성하게하자!

세계노동자의사회혁명만세!

파리디엘로트루다그룹, 1926.6.20

총칙

1. 계급투쟁, 그역할과 의미

- 단일한인류는없다.
- 계급적인간만이존재한다.
- 노예와주인들

오늘날의부르주아자본주의사회는그이전의사회들과마찬가지로‘단일한인류’를제공하지않는다. 부르주아자본주의사회는그상태와역할에따라사회적으로명확히구분되는두진영으로나뉜다. 한편에는 (광의의) 프롤레타리아트가있고, 한편에는부르주아지가있다.

다수의프롤레타리아트는수세기동안고통스러운육체적노동을감내하여왔지만, 그과실은그들이아니라자산, 권위, 문화적생산물 (화학, 교육, 예술) 을소유한다른자들, 부르주아지에게돌아갔다. 노동대중에대한사회적노예화와착취는현대사회가발을디딘근간이된다. 이러한노예화와착취가없는사회가존재할수없다.

이로써어느시점에는공개적이고폭력적이되고, 다른때에는외형상느리고불가시한계급투쟁이형성된다. 계급투쟁은계급적필요, 필수, 그리고노동자를위한정의를반영한다.

사회적영역에서모든인간의역사는노동대중의권리, 자유, 더 나은삶을위한끝없는투쟁의연쇄로설명될수있다. 인간사회의역사에서계급투쟁은언제나사회의형태와구조를결정하는핵심적요소였다.

모든국가의사회적/정치적체제는계급투쟁의산물이다. 모든사회의근본적구조는우리에게계급투쟁이모아내고발견될수있는무대로보여진다. 계급투쟁의세력들의상대적위치에발생하는가장작은변화조차도사회의구조에지속적인수정을야기한다.

이에대한가장혹독한예시는볼셰비키들이러시아에서확립한‘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라할것이다.

그들에의하면, 프롤레타리아독재는완전한코뮌주의를향한이행기적단계에불과해야한다. 현실에서, 이단계는언제나처럼노동자와농민이제일바닥에있는계급사회의재건으로귀결되었다.

코뮌주의사회를건설하는것의중점은모든개인들에게혁명의첫날, 그요구를충족할수있는자유를최대한보장할가능성을열어주는것만아니라, 사회의기반을쟁취하고, 개인의평등한관계에관한원칙을확립하는것까지포괄해야한다. 풍족의문제는원칙의문제가아닌기술적문제로보아야한다.

새로운사회가세워지고유지되어야할근본적원칙은관계의평등에관한원칙과노동자의자유와독립성에관한원칙이다. 이원칙은사회혁명을위해일어난대중의가장중요한근본적요구를대변한다.

사회혁명이노동자의패배로끝나, 다시투쟁과자본주의에대한새로운공세를준비해야하는경우가되거나, 아니면노동자의승리로끝나노동자가토지, 생산수단, 사회적기능의수단을손에쥐는경우가되거나, 어떠한경우에도노동자들은자유로운사회의건설을시작해야한다.

한번시작되면, 스스로를끊임없이강화하고완성해나가는것이코뮌주의사회의건설의특징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경우, 생산과사회의기능들을노동자가장악하는것은국가의시대와비국가의시대를정확하게경계짓는선이될것이다.

만약아나키즘이고통받는대중의대변자가되고싶다면, 사회혁명의깃발이되고싶다면, 아나키즘은옛체제의흔적위에강령을두어서는안된다. 이행기라는기회주의적경향들처럼, 근본적원칙을숨기는것이아니라그원칙을가장날카롭게발전시키고, 적용시켜야만한다.

8. 아나키즘과조합주의

우리는조합주의가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에반하는경향이라판단하며, 그것이인공적이고, 근본도의미도없는것이라본다.

모든문제들에대해대중은아나키스트들로부터명확하고구체적인답변을요한다. 그리고아나키스트들이혁명과사회구조에관한이론을선언하는순간부터, 아나키스트들은모든질문에대하여명확하게답변하고, 그질문들을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일반이론과연관짓고, 이것을실현하기위해전력으로헌신할의무가생긴다.

아나키스트총동맹과아나키스트운동은, 오직이방법을통해서만사회혁명의이론적추동력으로써자신의기능을다할수있을것이다.

7. 이행기

사회주의정당들은‘이행기’라는단어를“구체제질서를떨쳐내고새로운경제적/사회적체계를건설하는데 (이체계를통해노동자의완전한해방은이루어지지않지만) 필요한”절대적시기라이해한다. 그렇기에모든사회주의정당의최소강령 (그목적은자본주의사회의완전한변혁이아니라노동계급이마주하는즉각적문제를해결하는것) 은이행기강령이다. 이를테면, 사회주의적기회주의자들의민주주의강령이나, 공산주의자들의‘프롤레타리아독재’강령같은것말이다.

이행기강령들은노동자의이상, 즉독립성과자유와평등을완전히쟁취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을상정한다. 그렇기에결과적으로자본주의체계의기구들인국가적강제, 생산수단의사적소유, 관료제등을당의강령적목표에따라남길수밖에없다.

원칙적으로아나키스트들은이러한강령들을반대해왔다. 아나키스트들은착취와대중강제의원칙을유지하는이행기체계를건설하는것은필연적으로새로운노예제를건설할것이라믿는다.

이러한정치적최소강령을확립하는대신, 아나키스트들은언제나즉각적사회혁명을주장해왔다. 사회혁명을통해자본가계급으로부터경제적, 사회적특권을박탈하고, 생산수단과경제·사회생활의기능들을노동자에게넘겨주어야한다는것이였다.

지금까지, 아나키스트들은이입장을고수해왔다.

이행기에대한개념은, 공산주의사회가아니라해도구체제적요소를갖춘어떠한체계를만드는것이라도분명히반사회적이다. 이행기는언제나구체제적요소들이다시금힘을찾고사회를퇴행시키는위협이되어왔다.

이것이총체적이고세계적인관점에서계급사회에서의계급투쟁의역할이라하겠다.

2. 폭력적사회혁명의필요성

대중에대한폭력적노예화와착취의원리는현대사회의기반을구성한다. 경제, 정치, 사회적관계등이원리의존재적현현은계급적폭력에의존한다. 계급적폭력의도구는권위, 경찰, 군대, 사법부등이있다. 사회의모든것은, 모든기구를독립적으로보면, 국가의전체체계마저도, 자본주의의성벽에지나지않는다. 이성벽에서그들은노동자들을끊임없이주시하고, 사회의가장사소한것을, 근간을위협하는어떠한운동이라도힘으로탄압할준비를마치고있다.

동시에사회의체계는노동대중을무지와정신적빈곤의상태로유지한다. 사회의체계는노동대중의사기와지적수준을높이는것을억제한다. 그렇게하는것이체계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자본의기술적진화와정치체계의완성이라는현대사회의진보는지배계급의권력을공고히하고, 지배계급에대항하는투쟁을더욱어렵게만들어노동해방의결정적순간을연기한다.

현대사회에대한분석을통해우리는자본주의사회를자유로운노동자들의사회로변혁하는유일한방법은폭력적사회혁명을통한방법밖에없음을결론내릴수있다.

3. 아나키스트와자유주의주의적코뮌주의

노동자의노예화와그로부터자유로워지려는열망으로부터촉발된계급투쟁은억압속에서도아나키즘의이상을, 계급과국가에기반한사회체계를온전히도태시키고, 이를노동자자주경영에근거한자유롭고비국가주의적인노동자들의사회로대체하고자하는사상을낳았다.

그렇기에아나키즘은학자나철학자의추상적개념으로부터비롯하지않는다. 아나키즘은자본주의에대항하는노동자의직접투쟁으로부터비롯한다. 이투쟁은노동자의필요와필수로부터나오고, 노동자의자유와평등에대한열망으로부터

터나오며, 그 열망은 노동대중의 투쟁속에서, 인생의 가장 영웅적인 시기가 되었을 때 살아난다.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의 위대한 아나키스트 사상가들은 아나키즘의 사상을 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 사상을 대중으로부터 발견했다. 그들의 사상과 지식은 이를 구체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도왔을 뿐이다.

아나키즘은 개인적 노력의 결과물도, 개인적 연구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아나키즘은 인본주의적 열망의 산물이다. 단일한 인류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을 오늘날 인류에 대한 헌사로만 들고자 하는 시도, 아나키즘에 전체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짓에 불과하다. 이 거짓은 필연적으로 현상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착취를 정당화할 것이다.

아나키즘은 대중이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어하며, 현재 나미래의 인류의 운명은 착취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만인본주의적이다. 만약 노동대중이 승리한다면, 모든 인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만약 노동대중이 패배한다면, 폭력, 착취, 노예제, 억압은 언제나처럼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아나키스트 사상의 탄생, 개화, 실현은 노동대중의 삶과 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에 아나키스트 사상은 노동대중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

아나키즘은 현대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를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의 생산물을, 자유를, 독립성을,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로 변혁시키기를 원한다. 이 다른 사회는 자유의지주의적 코뮌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와 자유로운 개인은 최대로 드러날 것이고, 이 두 이상은 완벽히 조화를 이룰 것이다.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는 물리적이건 지적이건, 사회적 가치의 유일한 창조자는 노동자라고 믿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만이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는 비노동계급의 존재를 옹호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의 사회에 존재하는 한, 비노동계급이라 해도 어떠한 의무를 부과받지는 않을 것이다. 비노동계급이 생산적이 되고, 다른 이들 과 같은 조

조직된 아나키스트 투사들은 즉시 온 힘을 다해 그 요구와 가능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요구와 가능성이 개량주의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부서지고, 그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는, 마찬가지로 거대한 혁명적 잠재력을 가진 빈 농조와 과도 함께 해야 한다.

혁명 시기 아나키스트의 역할은 자유의지주의적 이상에 대한 선전 선동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삶은 이런저런 사상들의 선전을 위한 경기장이 아니다. 삶은 투쟁과 전략과 경제/사회 생활의 운영을 위한 사상적 열망의 장이다.

다른 그 어떤 사상보다도, 아나키즘은 혁명을 선도하는 사상이 되어야 한다. 아나키즘적 이론에 근거할 때만 사회혁명이 완전한 노동의 해방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 시기 아나키즘의 이상이 선도적 위치를 잡는 것은, 그 이론을 따른 사건의 방향성을 요한다. 하지만 이론적 추동력은 국가주의 당들의 정치적 리더십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만을 낳을 뿐이다.

아나키즘은 정치적 권력이나 독재 따위를 원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의 가장 큰 열망은 대중이 사회혁명으로 가는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사회혁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혁명의 방향성과 목표, 즉 자유로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 보여주듯, 이 과업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수많은 당들이 운동의 방향을 사회혁명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아나키즘적 경향성을 통해 사회혁명에 있어 스스로를 깊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 경향성은 분산되고, 통일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유지주의적 이상으로 추동된 조직을, 아나키즘적 지향과 목표를 혁명에서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직을 만들지 못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론적 추동력은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 대중이 건설한 집단을 통해서 표현되어야만 한다. 아나키스트 조직이 그 집단을 정확히 구성한다.

이 집단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의무는 혁명의 시기에 매우 크다.

아나키스트 조직은 그 주도권을 드러내고, 사회혁명의 모든 영역에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혁명의 지향과 총체적 성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혁명의 긍정적 과업들에, 새로운 생산과 소비에, 농민의 문제에, 이 모든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1917 년의러시아혁명과정에서노동자와농민의소비에트, 공장위원회를설치과정은사회적해방의과정을정확하게보여준다. 러시아혁명의서글픈오류는, 적절한시기에국가권력의조직을청산하지못했다는것이다. 임시정부에대해그러했고, 그에뒤이은볼셰비키권력에대해서도그러했다. 볼셰비키들은노동자와농민의지지를등에엮고부르주아국가를재조직했고, 그국가를지지하고유지하는과정에서결과적으로대중의창조적활동을말살했다. 볼셰비키는국가가없는사회주의사회를향한첫걸음을상징하던소비에트와공장위원회의자유로운체계를무너트렸다.

아나키스트의행동은혁명전과혁명중으로나누어볼수있다. 두지점모두에서아나키스트들은투쟁의목표와그목표를실현할방법에대한명확한인지를가진조직된세력으로써만그역할을다할수있다.

혁명전시기아나키스트총동맹의근본적과업은노동자와농민들을사회혁명을위해준비시키는것이다.

공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권위와국가를거부하는것에서, 노동해방의완성을선포하는것에서아나키즘은계급투쟁의철저한원칙을강조해야한다. 아나키즘은대중의계급의식과혁명적비타협성을갖추어나가야한다.

특히계급적비타협성에대해, 반민주주의에대해, 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반국가주의에대해대중에대한자유지주의적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교육만으로는불충분하다. 대중적아나키스트조직역시필요하다. 이를실현하기위해, 두가지방향의작업이필요하다. 한편으로는혁명적노동자와농민들을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의이론적기반에따라묶어낼필요가있다.(구체적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조직건설) 다른한편으로는, 혁명적노동자와농민들을소비와생산이라는경제적기반에따라다시묶어낼필요가있다.(혁명적노동자와농민의생산조직, 그리고노동자와자유농민의협동조직) 노동자와농민계급이생산과소비에기반하여조직되고, 이조직에혁명적아나키스트가침투할때, 이조직은사회혁명의가장강한지점이될것이다.

이조직들이아나키스트적방법론으로의식화되고조직될수록, 이조직들이혁명의순간비타협적이고창조적인의지를더많이드러낼것이다.

러시아의노동계급에관하여말하자면, 대중의자유로운활동에대한요구를묵어두었던볼셰비키독재 8 년간, 권력의본성이어느때보다잘드러났다. 러시아노동계급은그안에아나키스트대중운동구성에관한거대한잠재력을숨기고있었다.

건아래의코뮌주의사회에서, 사회의자유로운구성원으로써, 다른구성원들과동일한권리와의무를누리며살고싶어할때중단될것이다.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는개인과인민대중을향한모든착취와폭력을멈추고자한다. 그것을멈추기위해서는공동체의모든부문을단결시키고, 모든개인에게평등한위치를확보하고, 최대의후생을확립하기위한경제적, 사회적기반이필요하다. 그기반은생산의수단과도구 (산업, 운수, 토지, 원자재등) 에대한공동소유가, 평등과노동계급의자주경영이라는원칙위에건설된경제조직이될것이다.

노동자가스스로운영하는사회의한계속에서,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는각개인의가치와권리의평등이라는원칙을확립한다.(이것은“총체적”개인성이나, “신비로운개인성”이나, 개인성이라는개념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실제로살아가는개인을의미한다.)

4. 민주주의에대한반대. 민주주의는부르주아자본주의사회의한형태일뿐

민주주의의근간은현대사회의두대립적계급, 노동계급과자본계급을유지하는것이다. 이두계급의혼합이자본주의의적사유재산의근간이된다. 이러한혼합은의회와민족대의정부로드러난다.

공식적으로, 민주주의는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 단결의자유, 평등등을법으로규정한다.

현실적으로이모든자유들은상대적이다. 이모든자유는그것이부르주아지와같은지배계급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허용된다. 민주주의는자본주의적사유재산의원칙을불가침의원칙으로보존한다. 그렇기에민주주의는부르주아지가전체경제를, 언론을, 교육을, 과학을, 예술을통제할권리를준다. 그리고이것이부르주아지를그사회의절대적주인으로만든다. 경제생활권을독점함으로써부르주아지는정치권에서무제한적권력을확립할수있다. 그결과민주주의가허용하는바의회와대의정부는부르주아지의집행기구에지나지않는다.

결과적으로민주주의는정치적자유형상뒤에, 허구의민주적보장뒤에숨은부르주아독재의형태에지나지않는다.

5. 국가와권위에대한부정

부르주아이에올로기는국가가복잡한정치적, 시민적, 사회적관계를조율하며법과정의를수호하는기구라고정의한다. 아나키스트들은이정의에완전히동의한다. 하지만우리는이정의가불완전하다고생각한다. 법과정의의근간이대다수인민이소수에예속되는것이라는명제가있어야, 이것을지키는것이야말로국가의목적이라는논의가있어야이정의가완전해질것이다.

국가는부르주아가확보한조직된폭력임과동시에, 그집행기구의체제다.

좌파들, 특히볼셰비키들역시부르주아국가와권위가자본에복무한다고생각한다. 하지만그들은권위와국가가사회주의정당의손에들어온다면, 그것은프롤레타리아트의해방을위한투쟁에강력한무기가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당들은‘사회주의적’권위와‘프롤레타리아’국가를위한존재들이다. 이들중일부(사민주의자들)는권력을평화적, 의회주의적수단으로확보하고자하고, 다른이들(볼셰비키, 사회혁명당좌파)은권력을혁명적수단으로확보하고자한다.

아나키즘은이들모두가근본적으로잘못되었으며, 노동해방투쟁을저해한다고생각한다.

권위는언제나인민대중의착취와예속의존한다. 모든권위는착취로부터태어났거나, 착취를위해창조되었다. 폭력과착취가없는권위는존재의의미를상실한다.

국가와권위는대중으로부터모든주도권을앗아가고, 창조와자유로운행동의영혼을죽이며, 그들에게서복종을, 기대를, 사회적사다리를올수있다는희망을, 지도자를향한맹신을, 권위를나누고있다는환상을, 노예의심리상태를길러낸다.

그렇기에노동해방은오로지광대한노동대중의직접적혁명투쟁과자본주의체제에대항하는계급조직을통해서만가능하다.

현재의질서를긍정한채평화로운수단으로사회민주당이권력을확보하는것은노동해방이라는과업에서단한발짝도전진하는길이아니다. 실질적인힘, 결과적으로실질적인권위는경제와정치를통제하는부르주아에게여전히귀속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러한개혁의형태에서사회주의적권력의역할은체제변혁이아닌개량으로축소된다.(독일, 스웨덴, 벨기에등의사회민주당을보라)

사회적봉기를통해“프롤레타리아국가”를조직함으로써권력을확보하는것역시노동의진정한해방이라는대의에전혀복무할수없다. 혁명을방어하기위해세워졌어야할국가는그자신의필요와성격에따라불가피하게왜곡된다. 국가는그자체로목표가되고, 특정한특권계층을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자본주의적권위와국가를, 언제나인대중에대한폭력적예속과착취를재확립하게된다.(볼셰비키의“노동자-농민국가”를보라)

6. 사회적투쟁과사회혁명에서대중과아나키스트의역할

사회혁명의핵심적세력은도시노동계급, 농민대중, 그리고노동인텔리겐차의일부이다.

주의: 노동인텔리겐차는도시/농촌프롤레타리아트와같은방식으로착취되고억압받고있지만, 인텔리겐차들은노동자와농민에비해단결력이약한경향이있다. 이것은부르주아지가인텔리겐차에게노동자와농민에비해경제적특권을허용해주기때문이다. 이것이인텔리겐차계층의가장불우한일부만이사회혁명에초기부터적극적으로참여하는이유다.

아나키스트들과국가주의정당들은대중이사회혁명과사회주의를건설하는과정에서해야하는역할에대하여서로다른개념을가지고있다. 볼셰비키와그와유사한경향들은대중이조직파괴적인혁명본능만을가지고있어, 창조적이고건설적인작업을할수없다고본다. 그렇기에창조적이고건설적인작업은국가의정부를구성하는당중앙위원회의손에맡겨져야한다는것이다. 반면아나키스트들은노동대중들이거대한창조적이고건설적인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믿는다. 그리고아나키스트들은이가능성의실현을막고억제하는장애물을치우기를열망한다.

아나키스트들은국가가가장핵심적인장애물이라믿는다. 국가는대중의권리를빼앗고, 그들의경제적, 사회적생활기능을앗아간다. 국가는미래“언젠가”해소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 즉각적으로해소되어야한다. 국가는노동자혁명의첫날, 노동자들의손으로파괴되어야한다. 그리고국가는어떠한형태로도다시구성되어서는안된다. 국가는생산자와소비자가스스로운영하는노동자조직의단결한연방으로대체될것이다. 이체계는일당독재와같은모든형태의권위주의조직을배격할것이다.